

경도지적장애인의 마음읽기와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

정지윤**

대구대학교

김화수***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이근용****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요약》

경도지적장애인의 마음읽기와 언어발달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도지적장애인 20명과 경도지적장애 집단과 생활연령 및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각 20명을 대상으로 마음이론 과제를 실시하였다. 각 집단의 마음이론 과제 평균을 비교하였으며, 경도지적장애 집단 내의 마음이론 과제 점수와 언어발달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일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수행에서는 경도지적장애 집단과 언어연령일치 집단, 경도지적장애 집단과 생활연령일치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수행에는 경도지적장애 집단과 생활연령일치 집단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경도지적장애 집단 내의 일차순위 마음이론 과제의 수행은 BASA 빈칸 채우기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이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수행에는 BASA 읽기, BASA 빈칸 채우기, 수용어휘력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마음이론과제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의사소통상황에서 마음이해를 통한 언어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경도지적장애, 마음읽기, 마음이론

* 이 논문은 정지윤(2013) 석사논문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임.

** 제1저자(god-ing@nate.com)

*** 교신저자(whasoolang@hanmail.net)

**** 공동저자(jusg@naver.com)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규범과 생활양식을 배워 가며 생활한다. 즉,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은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필수적이다. 상대방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야 하는 것은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마음과 정신적 상태의 상호작용이며, 정신적 상태의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 할 때 자주 언어가 사용된다. 자신은 자신에 대한 생각과 믿음, 바람 등을 가지고 타인은 타인에 대한 생각과 믿음, 바람 등을 가지며 이것은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함으로서 이야기로 나타낸다. 언어는 다른 사람과 함께 ‘접촉’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교환’ 하는 것이다(Astington, 2007).

마음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을 Permack과 Woodruff(1978)은 마음이론(theory of mind)이라고 하였다. 이는 자신과 다른 사람이 각각 독립적인 심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심적 상태를 귀인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성숙한 마음이론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 욕구, 공포와 같은 정신적 상태가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존재하고,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Miller, 2001: 김정미, 2003에서 재인용). 즉,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마음읽기는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마음읽기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생각해내는 것으로 이는 의사소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Baron-Cohen, 2005).

의사소통 가운데 사회적 의사소통은 다양한 대화 상대자, 상황 등에서 구어적/비구어적 행동수단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것(진연선, 2014)이므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박현옥, 2008). 최근 DSM-V에 추가된 사회적/화용의사소통장애(social/pragmatic communication disorder, SCD) 뿐만 아니라 언어발달장애에서 흔히 만나는 언어치료 대상자들은 종종 이러한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문제를 호소한다.

국내 특수교육대상자의 마음이론 연구 동향(김건희, 장수정, 2013)을 살펴보면 1998년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나, 그 중에 대부분은 자폐성 장애에 대한 연구들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이루어진 마음읽기나 마음이론은 자폐 아동의 사회적 결함을 설명해주는 하지만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마음이론은 언어발달, 사회적 상호작용, 인지 영역에서 관련이 높은 만큼, 자폐성 장애라는 영역에만 마음이론을 제한하여 연구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애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김정호, 2008).

최근 경도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평생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취업 및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는 등 활발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도지적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직업, 학업, 그리고 일상생활교육과정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도지적장애인이 지금까지 학령기 동안 받아온 생활기술(언어, 읽기, 쓰기, 산수)과 사회적 행동 기술은 학령기의 제한된 교육과정과 수업환경에서 기초적인 적용만 배웠을 뿐 한계점을 가지며, 그들의 나이에 맞는 일상생활기능들을 배우지 못하였다(박정식, 2012).

직업의 경우 지적장애인의 직업유지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는 요인은 언어, 수 개념, 언어학습능력, 시간개념, 이해능력 등으로 이러한 능력이 숙달된 지적장애인은 개념적 언어로 지시되는 여러 가지 범주에 포함되는 다양한 기술과 기능을 더 빨리 습득하게 되고 그만큼 직업적응에 유리한 면이 있다. 또한 직업유지의 실패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공격적이며, 언어사용 미숙 등 개념적·사회적 기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채식, 2005). 앞선 연구는 경도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언어사용 및 개발이 일상생활적응과 직업유지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음에 따라 경도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의사소통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 의사소통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방법 중 하나로 마음이론은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 마음이론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지속되어지고 있다. 마음이론 발달의 전환적 시기가 4세 무렵임을 제시한 몇몇의 연구자들은 표준과제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문제 때문에 3세 유아들이 과제수행에 실패한다고 지적한다(김혜리, 1997; 이영자, 이종숙, 신은수, 2002). 연구자들은 3세 유아를 대상으로 표준과제를 실시하면서 언어적 암시를 제공하거나 정서 단서를 제시하여 표준과제 수행능력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나 그들이 행한 결과는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 되지 않았다. 따라서 어린 유아의 마음이론 습득을 조사하기 위한 다양하고 다면적인 방법들의 고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이시자, 2008). 최근 국내에서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 연구들을 살펴보면 마음이론 수행에 관한 과제가 컴퓨터로 제시된 그림과 함께 음성으로 줄거리를 들려주거나, 이야기를 읽고 답을 하거나, 사진을 보고 정서를 읽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마음이론 측정에 대한 필요 이상의 인지적, 언어적 부담을 요구한다고 제시하였다(김혜리 외, 이수미, 2007; 최현옥, 김혜리, 2007; 최현옥, 김혜리, 2012).

지금까지의 마음이론의 연구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마음이해를 측정하는 것임에도 2차원적인 그림이나 이야기로 제시되어 필요이상의 언어적, 인지적

요구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앞선 연구를 참고로 하여, 마음이론 과제를 실제 상황이 제시된 시나리오로 작성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한 후 진행하였다.

경도지적장애인 마음이론의 발달적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일차 순위 마음이론 과제(Wimmer & Perner, 1983), 이차순위 마음이론 과제(Perner & Wimmer, 1985), 고차순위 마음이론 과제(Happé, 1994)를 수정, 보완하여 적용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경도지적장애인 집단 내의 마음이론 과제 수행을 알아보고 이러한 마음이론 능력과 언어발달의 관계를 알아 보 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경도지적장애 집단과 언어연령 및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집단 간의 마음이론 과제 수행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경도지적장애 집단의 마음이론 과제 수행은 언어연령, 생활연령, 읽기점수, 구문의미 이해력과 상관이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북지역에서 평생교육 수업에 참여중인 경도지적장애인 20명과 경도 지적장애 집단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초등학생 2~5학년 20명, 경도지적장애 집단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대학생 1~2학년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도지적장애인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관련 기관이나 병원에서 지적장애 2~3급 진단을 받았으며, 둘째, 생활연령이 18세 ~ 25세 사이인 성인으로, 셋째, 시각, 청각 등의 감각장애나 정서 또는 심리적 문제를 보이지 않으며, 넷째,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김영태 외, 2009) 평가 결과에서 자신의 나이보다 1세 이상 지체된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언어연령일치 집단 선정기준은 첫째, 경도지적장애 집단의 수용·표현어휘력검사 (Receptive Expressive - Vocabulary Test: REVT, 김영태 외, 2009) 평가를 토 대로, 언어연령이 일치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생활연령일치 집단 선정기 준 첫째, 경도지적장애인과 생활연령이 일치하며, 둘째, 시각, 청각 등의 감각장애나 정서 또는 심리적 문제를 보이지 않는 성인으로 선정하였다.

경도지적장애 집단과 언어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수용

· 표현 어휘력검사(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김영태 외, 2009)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은 언어연령에서 동질집단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경도지적장애 집단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집단의 생활연령의 동질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 대상자 정보

변수	경도지적장애 (N=20)		언어연령일치 (N=20)		생활연령일치 (N=20)		<i>t</i>	<i>p</i>
	M	SD	M	SD	M	SD		
	언어연령	105.05	18.48	110.77	20.72	-		
생활연령	250.35	38.22	-	-	249.95	24.39	.039	.969

경도지적장애 집단은 2급 언어치료 자격증 소지자 2명에 의해 평가되었다. 각 집단의 분류는 두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최종 분류는 두 평가자에 의해 동일하게 평가된 대상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 도구

1) 대상자선별 검사도구

경도지적장애 집단과 언어연령일치 집단을 선별하기 위하여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김영태 외, 2009)를 사용하였다.

2) 마음이론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마음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의 마음이론 과제, 즉 일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이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고차순위 마음이론 과제(숨은 말 뜻 이해하기)를 실시하였다.

각 과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이야기의 내용을 토대로 동영상 제작하였다. 동영상을 보여준 뒤 녹음된 질문을 제시하였다. 과제를 시작하기 전 등장인물에 대한 이름과 얼굴을 보여주고 실험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였다. 마음이론 순위별로 2개의 과제가 제시되어 총 6개의 과제로 진행되었으며 각 과제당 1분~1분 30초 가량 소요

되었다. 과제의 총 검사시간은 10~15분이며, 마음이론 각 과제의 채점기준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1) 일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일차순위 틀린믿음 과제로 Wimmer와 Perner(1983)의 과제에 사용된 이야기를 토대로 수정하여 만들었으며, 위치이동 과제와 내용교체 과제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위치이동 과제와 내용교체 과제의 총 점수 범위는 0~8점이다.

① 위치이동 과제

A가 화장실을 가기 전에 책을 책상 위에 두었는데 B가 와서 책을 보고 가방에 넣는다. 이후에 A가 화장실에 갔다 와서 어디에서 책을 찾을 것인가를 묻는다.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여 준 후 질문을 제시한다. 각 질문은 각 1점이며 점수 범위는 0~4점으로 채점된다. 확인 질문 2개와 검사질문 2개로 이루어져 있다. 검사 질문은 피검사자가 우연에 의한 반응이 아닌 실험상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개의 검사 질문을 실시하였다.

② 내용교체 과제

A라는 학생이 친구에게 받은 두유상자를 보면서 무엇이 들어 있을지 궁금해 한다. 열어본 결과 두유상자 안에 사과가 들어 있었다. 잠시 뒤 친구가 와서 두유상자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확인질문 2개와 검사질문 2개로 이루어져 있다. 검사 질문은 피검사자가 우연에 의한 반응이 아닌 실험상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개의 검사 질문을 실시하였다. 점수 범위는 0~4점이다. 위치이동 과제와 내용교체 과제를 포함하는 일차순위 마음이론 과제의 총 점수범위는 0~8점이다.

(2) 이차순위 마음이론과제

이차순위 마음이론 과제로는 Perner와 Wimmer(1985)연구와 Suliivan 등(1994) 토대로 이수미(2007)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차순위 마음이론 과제는 위치이동 과제와 내용교체 과제 보다 복잡성을 요구하며 고차원적 사회인지능력을 요구한다.

① 생일선물 과제

A라는 친구가 생일이고, 이때 B가 와서 A에게 생일 선물로 A가 싫어하는 책을 선물하게 된다. B친구가 나간 뒤에 A는 B가 몰래 준비한 A의 진짜 선물을 알아내게

되고 잠시 뒤에 B, C라는 친구가 들어와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가지고 이야기 한다.

② 사탕 이야기 과제

두 번째는 사탕 파는 이야기 과제로 공원에 놀고 있는 A, B는 사탕을 파는 아주머니를 만나고, 사탕을 사려고 하지만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B는 집으로 가서 돈을 가져 오겠다고 한다. B가 돈을 가지러 간 사이에 사탕 파는 아주머니는 A에게 학교 앞으로 간다고 하고 공원을 떠난다. 학교로 가던 도중 B를 만나게 되고 사탕 파는 아주머니는 B에게 학교 앞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 한다. 이차순위 마음이론 과제는 각 5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1점으로 채점하여 점수 범위는 0~5점이다. 이차순위 틀린 믿음 과제의 총점은 10점이다.

(3) 고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이상한 이야기 과제)

말의 숨은 뜻을 이해하는 능력인 이상한 이야기 과제(Happé, 1994)중에서 선의의 거짓말과 풍자를 선택하여 우리 연구에 적합하게 구성하였다. 첫째, 선의의 거짓말 과제는 엄마에게 선물 받은 모자를 쓴 친구가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기분이 상할까봐 예쁘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풍자 과제로 상대방의 말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간식을 들고 왔을 때, 누워 있는 아동에게 “우리 딸 예의 바르게도 누워있네” 라는 말을 하고 나면 그 말의 진짜 뜻을 파악하는 내용이다. 검사 질문의 경우 마음의 이해를 정확하게 반영하면 각 1점으로 산정하였고, 각과제의 총 점수는 0~8점이다.

3) 경도지적장애 집단 언어발달 검사도구

(1)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계(BASA)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계(Basic Academic Skills Assessment: Reading, 김동일, 2002)는 읽기유창성 검사와 빈칸 채우기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읽기유창성 검사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1분 동안 바르게 읽은 음절수를 읽기 유창성 점수로 한다. 빈칸 채우기 검사는 3분 동안 문맥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검사이다.

(2) 구문의미이해력검사

구문의미이해력검사(배소영 외, 2004)는 만 4세~9세 수준의 구문의미 이해력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의미적, 문법적으로 복합적으로 질문을 구성되어 있다.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와 절, 문장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어휘, 비유, 유추적 의미 파악이 필요하다.

3. 연구 절차

경북지역에서 평생교육 수업에 참여 중인 경도지적장애인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2주간 경도지적장애 집단에 언어검사와 마음이론 검사를 실시하였다. 경도지적장애 집단의 언어연령을 산출하여 2주간 부산 및 경북일대에서 언어연령 및 생활연령 일치 집단을 모집하였다. 각 집단은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언어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마음이론 검사를 실시하였다. 마음이론 검사는 시작 전 영상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간단히 검사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마음이론 검사는 영상과 함께 녹음된 질문을 제시하고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마음이론 수행은 녹음한 후 1주 안에 마음이론 수행에 대한 답을 전사하였으며 이를 점수화 하였다.

4. 채점 및 통계 처리

일차순위 마음이론 과제는 위치이동 과제, 내용교체 과제로 진행되며, 각 과제당 확인질문 2개(2점), 검사질문 2개로 각각 1점씩 이루어지며 일차순위 마음이론 과제의 총점의 범위는 0~8점이다. 이차순위 마음이론 과제는 생일선물과제, 사탕이야기과제로 확인질문 2개(2점), 검사 질문 3개를 사용하여 각 1점씩, 총 5점이 주어진다. 따라서 총 2개 이차순위 마음이론 과제의 총점의 범위는 0~10점이다. 고차순위 마음이론 과제는 선의의 거짓말(모자이야기)과 풍자(엄마와 딸 이야기) 과제로 기억질문 1개, 검사질문 3개를 사용하여 1점씩 총 4점으로 이루어진다. 총 2개의 고차순위 마음이론 과제의 총점의 범위는 0~8점이다. 각 채점 기준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20.0 for Window)를 사용하여 마음이론 점수가 경도지적장애 집단의 생활연령일치 집단 및 언어연령 일치 집단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지적장애 집단 내의 마음이론 과제 수행점수와 구문의미이해력, BASA 읽기 유창성, BASA 빈칸 채우기, 언어연령, 생활연령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경도지적장애 집단, 언어연령일치 집단, 생활연령일치 집단 간의 마음이론 점수 결과

경도지적장애 집단, 언어연령일치 집단, 생활연령일치 집단의 마음이론 점수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2>와 같다. 경도지적장애 집단의 마음이론 과제 수행 평균은 일차순위 마음이론 3.3점($SD=1.54$), 이차순위 마음이론 3.35점($SD=1.26$), 고차순위 마음이론 3.85점($SD=1.78$)이다. 언어연령일치 집단 마음이론 과제 수행 평균은 일차순위 마음이론 6.55점($SD=1.34$), 이차순위 마음이론 4.95($SD=1.60$), 고차순위 마음이론 5.60점($SD=2.06$)이다. 생활연령일치 집단의 마음이론 과제 수행 평균은 일차순위 마음이론 7.15점($SD=2.21$), 이차순위 마음이론 8.80점($SD=1.28$) 고차순위 마음이론 7.30점($SD=1.12$)으로 나타났다.

<표 2> 집단 간 마음이론과제 수행비교

	일차순위 마음이론		이차순위 마음이론		고차순위 마음이론		마음이론 총점	
	M	SD	M	SD	M	SD	M	SD
경도지적장애 (N=20)	3.30	1.54	3.35	1.26	3.85	1.78	10.40	4.05
언어연령일치 (N=20)	6.55	1.34	4.95	1.60	5.60	2.06	17.10	3.27
생활연령일치 (N=20)	7.15	2.21	8.80	1.28	7.30	1.12	23.25	1.83

집단 간의 마음이론 과제수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집단 간의 마음이론과제 수행 점수의 차이는 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일원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일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수행의 집단 간 차이는 ($F(2, 57)=47.517,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수행의 집단 간 차이($F(2, 57)=80.814,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집단 간 고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수행 차이($F(2, 57)=20.492,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마음이론 과제 전체의 수행의 차이는 ($F(2, 57)=81.138,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마음이론과제 별로 어느 집단 간 수행 차이가 유의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3> 마음이론과제의 수행점수의 분산분석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
일차순위 마음과제	집단-간	181.233	2	90.617	47.517	.000
	집단-내	108.700	57	1.907		
	합계	289.933	59			
이차순위 마음과제	집단-간	313.900	2	156.950	80.814	.000
	집단-내	110.700	57	1.942		
	합계	424.600	59			
고차순위 마음과제	집단-간	119.033	2	59.517	20.492	.000
	집단-내	165.550	57	2.904		
	합계	284.583	59			
마음과제 총합	집단-간	1652.233	2	826.177	81.138	.000
	집단-내	580.350	57	10182		
	합계	2232.583	59			

*** $p < .001$

일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수행에 대한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경도지적장애 집단과 언어연령일치 집단, 경도지적장애 집단과 생활연령일치 집단은 일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수행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그러나 언어연령일치 집단과 생활연령일치 집단의 수행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일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수행점수 사후검정결과

	경도지적장애	언어연령일치	생활연령일치
경도지적장애	-		
언어연령일치	***	-	
생활연령일치	***	.600	-

*** $p < .001$

이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수행에 대한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경도지적장애 집단과 생활연령일치 집단, 언어연령일치 집단과 생활연령일치 집단 간의 이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수행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그러나 경도지적장애 집단과 언어연령일치 집단 간의 이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수행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5> 이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점수에 대한 사후검정결과

	경도지적장애	언어연령일치	생활연령일치
경도지적장애	-		
언어연령일치	1.600	-	
생활연령일치	***	***	-

*** $p < .001$

고차순위 마음이론 과제의 수행 점수에 대해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경도지적장애 집단과 생활연령일치 집단 간의 고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수행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p < .001$). 그러나 경도지적장애 집단과 언어연령일치 집단, 생활연령일치 집단과 언어연령일치 집단 간의 고차순위 마음이론 수행 점수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고차순위 마음이론 과제점수에 대한 사후검정결과

	경도지적장애	언어연령일치	생활연령일치
경도지적장애	-		
언어연령일치	1.750	-	
생활연령일치	***	1.700	-

*** $p < .001$

마음이론 과제의 총 수행 점수에 대해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7> 과 같다. 경도지적장애 집단과 언어연령일치 집단, 경도지적장애 집단과 생활연령일치 집단 간의 마음이론 과제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언어연령일치 집단과 생활연령일치 집단의 마음이론 과제의 총 수행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 < .001$).

<표 7> 마음이론 과제의 총 수행 점수에 대한 사후검정결과

	경도지적장애	언어연령일치	생활연령일치
경도지적장애	-		
언어연령일치	***	-	
생활연령일치	***	***	-

*** $p < .001$

2. 경도지적장애 집단의 연령, 마음이론과제점수, 언어점수의 상관분석

경도지적장애 집단의 수용·표현어휘력검사, 구문의미이해력검사, BASA 읽기 유창성, BASA 빈칸 채우기 검사의 기술 통계는 <표 8>과 같다.

<표 8> 경도지적장애 집단의 언어 검사별 기술통계

집단	언어검사	M	SD
경도지적장애 N=20	수용어휘력	90.15	16.75
	표현어휘력	84.90	16.60
	구문의미이해력	34.15	11.62
	BASA 읽기	217.25	72.13
	BASA 빈칸채우기	11.50	10.05

경도지적장애 집단의 생활연령, 수용·표현어휘력검사, 구문의미이해력검사, BASA 읽기 유창성, 빈칸 채우기 검사와 마음이론 과제 수행 점수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경도지적장애 집단의 생활연령, 언어점수와 마음이론점수의 상관분석

	생활 연령	수용 어휘	표현 어휘	구문 의미	BASA 읽기	BASA 빈칸	일차 마음	이차 마음	고차 마음	마음 총점
생활 연령	1									
수용 어휘	.469*	1								
표현 어휘	.348	.380	1							
구문 의미	.263	.485*	.333	1						
BASA 읽기	.046	.213	.220	.180	1					
BASA 빈칸	.243	.315	.215	.362	.411	1				
일차 마음	.094	.433	.270	.245	.397	.736**	1			
이차 마음	.064	.642**	.299	.378	.673**	.510*	.662**	1		
고차 마음	-.005	.381	.289	.369	.390	.371	.642**	.699**	1	
마음 총점	.054	.533*	.323	.374	.533*	.602**	.870**	.872**	.902**	1

* $p < .05$, ** $p < .01$

경도지적장애 집단은 일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수행과 BASA 빈칸 채우기에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r=.736, p<.01$). 이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수행과 BASA 빈칸 채우기($r=.510, p<.05$), 이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수행과 BASA 읽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r=.673, p<.01$). 또한 이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수행과 수용어휘력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r=.642, p<.01$). 마음이론 과제 수행의 총점은 BASA 읽기($r=.533, p<.05$)와 BASA 빈칸 채우기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r=.602, p<.01$). 일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수행과 이차순위 마음이론 과제수행($r=.662, p<.01$), 일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수행과 고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수행($r=.642, p<.01$)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고, 이차순위 마음이론 과제는 고차순위 마음이론 과제($r=.669, p<.01$)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고차순위 마음이론 과제는 마음이론의 총점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r=.902, p<.01$). 마음이론 과제의 총점수와 일차순위 마음이론 과제($r=.879, p<.01$), 마음이론 과제의 총점수와 이차순위 마음이론 과제($r=.872,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마음이론 과제의 총 점수는 수용어휘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r=.533, p<.05$).

수용어휘력은 생활연령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r=.469, p<.05$)을 나타냈고, 수용어휘력은 구문의미이해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r=.485, p<.05$)을 나타냈다. 고차순위 마음이론 과제는 언어 발달과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경도지적장애인의 언어와 마음발달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도지적장애 집단과 경도지적장애 집단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언어연령일치 집단,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생활연령일치 집단 간의 일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이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고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고 각 집단을 비교하였다.

각 마음이론 과제 수행 점수의 집단 간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수행은 경도지적장애 집단, 언어연령일치 집단, 생활연령일치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차순위 마음이론의 획득 즉, 틀린 믿음의 이해가 4세 이후에 획득 된다는 선행연구(김혜리, 1997; 이수미, 김혜리, 2000; 정진나, 2013; Wimmer & Perner, 1983)에 따르면 본 연구의 경도지적장애 집단과 언어연령일치 집단 간에는 수행 점수에 차이가 없어야 하지만, 일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수행 점수에서 언어연령일치 집단은 평균 6.5점을 획득하였으며 경도지적장애 집단은 평균 3.3점을 획득하여 수행에 큰 차이를 보였다.

본 검사의 언어연령은 어휘력을 통한 언어연령을 산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언어의 의미적 측면이 아닌 화용적 결함임을 짐작 할 수 있다. 경도지적장애 집단은 대화의 상황을 이해하는 언어의 화용적 결함을 통해 일차순위 마음이론 과제수행에 차이가 있었다고 예상 할 수 있다.

둘째, 이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수행에서 경도지적장애 집단과 생활연령일치 집단, 생활연령일치 집단과 언어연령일치 집단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 하였지만, 언어연령일치 집단과 경도지적장애 집단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이차순위 마음이론 과제가 일차순위 마음이론 과제보다 복잡한 언어 및 인지 처리를 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경도지적장애 집단과 정상 집단 모두 이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수행 점수가 일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수행 점수에 비해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이는 이차순위 마음이론의 발달이 7세 이후 발달하며, 11세 이후에는 발달적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이수미, 김혜리, 김아름, 2007)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사실 언어연령일치 집단 내에 나타난 낮은 수행 점수는 마음이론 발달을 설명해주는 당연한 결과일 지도 모른다.

셋째, 고차순위 마음이론 과제에서는 일차순위 마음이론 과제나 이차순위 마음이론 과제의 수행 점수와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보통 고차순위 마음이론 과제는 학령기 아동이나 자폐, 지적장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사용되어져 왔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고차순위 마음이론 과제에서 보려고 하는 언어나 상황의 이해 능력이 일차순위 및 이차순위 마음이론 과제에서 나타난 언어적 이해나 상황적 인지능력보다 더 높은 차원의 마음발달(김혜리 등, 2007; Miller, 2012)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경도지적장애 집단 내의 생활연령, 언어검사, 마음이론 과제 점수의 상관관계를 통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마음순위 과제 수행 점수와 언어검사는 종류에 따라 상관에 차이를 보였다. 일차순위 마음이론 과제는 BASA 빈칸 채우기와는 상관을 보였으나, BASA 읽기와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빈칸 채우기는 문맥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일종의 독해능력(우정한, 김상선, 2010)이므로 일차순위 마음발달을 위해서는 내용의 의미파악과 어휘력과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이차순위 마음이론 과제수행에는 BASA 읽기, 빈칸 채우기, 수용어휘력 검사에서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차순위 마음 발달은 일차순위 마음 발달 보다 복잡한 언어적 처리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읽기는 텍스트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읽기를 위해서는 음운인식, 글자해독, 읽기유창성, 어휘 및 읽기이해 등이 필요하다. 읽기는 언어발달과 관련이 있으며 언어의 음운, 의미, 구문 및 화용적 측면의 지식에 크게 의존한다(Lerner & Johns, 2009, 우정한 2010에서 재인용). 이차순위 마음이론 과제의 상관분석 결과 마음이론 발달은

언어능력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였다(이영자, 이종숙, 신은숙, 2004; 이현진, 2005; Milligan, Astington, & Dack, 2007; Hoppé, 1995).

셋째, 고차순위 마음이론 과제가 언어발달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는 것은 고차순위 마음이론 과제가 마음이론 발달 과제로서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를 돌이켜 보게 한다(김혜리 외, 2007). 4세경에 이해하게 되는 일차순위 마음이론과 4세 이후에 이해하게 되는 이차순위 마음이론의 발달은 모두 마음이 표상임을 알아야 한다(Perner, 1991). 6세 이후에는 마음상태를 알려주는 분명한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마음 상태를 읽는 것은 고차원적인 마음읽기 능력의 발달로 예상되며, 특히 숨은 말 뜻을 이해하는 능력(풍자, 선의의 거짓말 등)은 고차원적인 마음읽기 과제 중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혜리 외, 2007).

세 집단의 고차순위 마음이론 과제는 일차 및 이차순위 마음이론 과제 평균점수에 비해 높다는 점, 고차순위 마음이론 과제가 언어발달 검사와 유의미한 상관이 없다는 점을 통해, 이 과제가 마음발달의 고차순위를 설명하였지만, 사실상 다른 영역의 발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짐작된다.

일차순위 마음이론과 이차순위 마음이론 발달간의 차이는 상위 표상적 차원의 마음이해를 말하는데 반해, 고차순위 마음이론 과제는 단순한 상황적 이해에 치중된 것이다. 고차순위 마음이론 과제의 인지적 요구나 언어적 상황이 이차순위 마음이론 발달보다 더 낮은 수준의 형태로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존의 마음이론 검사는 조용한 방에서 그림을 보여 주면서 이야기를 들려주거나(김혜리, 1997),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여 컴퓨터로 이야기를 제시 한 뒤 질문(김혜리 외, 2001; 이수미, 김혜리, 김아름, 2007)하거나, 아동에게 인형, 장난감을 사용하여 이야기(송영주, 2006; 배기조, 최보가, 2002; 지은주, 이정순, 2007)를 들려주었다. 이러한 검사방법은 상황적 제시에서 언어적 부담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마음이론 과제를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녹음된 질문을 사용하여 선행연구의 검사방법과 차별을 두었다. 이는 마음이론 과제의 상황을 영상이나 언어로 제시하는 것이 과제 수행에 있어서 차이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Wellman, Cross, & Watson(2001)의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영상 속에서 주인공의 대화를 듣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존의 마음이론 과제와 동일한 상황을 영상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언어연령일치 집단의 경우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초기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생활연령일치 집단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현실과 유사한 역동적 상황을 연구에 대입하여 실험하는 것은 상황에 따른 질문이나 내용의 접근에 있어서 통제성을 갖는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동영상이 모호한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예쁘지 않은 모자를 보고

‘예쁘다’ 라는 답을 한 이야기 과제의 경우 언어적으로 제시했을 때는 ‘예쁘지 않다’ 라는 말이 직접 드러나지만, 영상으로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등장인물의 얼굴 표정, 말투를 미루어 짐작해야 하고, 이를 집중하지 않은 경우 틀린 답을 하게 된다. 사실 마음이론 발달이 언어발달을 설명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마음이론 발달 연구의 대부분에서는 그림과 함께 이야기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언어적 요구가 높은 과제이다. 사회적 상황을 그림과 언어로 제시했을 때 오히려 언어적 반응을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제한된 사고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기존 마음이론 연구의 제한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동영상 제시하고 마음이론 발달과 언어발달의 관계를 모색해 보려고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상자의 지능을 일치시키지 못했다는 점, 지역적 제한점 등이 존재한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음이론 과제의 다양한 방법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마음이론은 다른 발달과 달리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표상적 과제를 다루므로 특히, 단면적인 이야기를 제시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영상을 통해 실제 상황적 제시가 필요하다. 마음이론에 대한 표준화된 과제가 제시되어 있는지만 이것이 진짜 표준화된 과제인지, 과제의 특성상 특정연령대에서 수행의 실패가 야기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정상아동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의 경우에도 마음이론 발달과 언어가 상관을 보인 것은 앞으로 지적장애 언어치료에서 마음이론을 통한 언어치료 접근의 근거를 제시한다. 국내에 단순언어장애, 자폐스펙트럼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었으나, 앞으로 다양한 장애, 다양한 연령대를 통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마음이론을 통한 실제적인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건희, 장수정 (2013). 특수교육대상자에 있어 국내 마음이론 연구 동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9(4), 143-173.
- 김동일 (2006).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계: 읽기검사**. 서울: 학지사.
- 김정미 (2003). 단순언어장애의 마음이론. **언어청각장애연구**, 8(3), 69-81.
- 김경미, 이현진, 권은영 (2008). 4, 5세 아동의 틀린 믿음, 정서, 언어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4), 39-55.
- 김정효 (2008) 자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각의 원리 연구 동향 분석: 최근 10년간 (1997~2006)의 국외 연구를 중심으로. **자폐성장애연구**, 8(2), 111-136.
-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 (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 Vocabulary Test, REVT).**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혜리 (1997). 아동의 마음 이해 발달: 틀린민음에 대한 이해로 살펴본 마음 이론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10(1), 74-91.
- 김혜리, 박선미, 황순택, 이현진, 박영신, 이수경, 신철진, 이문숙 (2001). 자폐아동의 마음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15-35.
- 김혜리, 구재선, 김경미, 양혜영, 정명숙, 최현옥, 이수미 (2007). 학령기와 그 이후의 마음이해 발달: 애매한 상황에서의 마음읽기 능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 21-49.
- 박정식 (2012). 고등학교 환경에서의 전환활동이 발달장애대학생의 일상생활자립 능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3), 22-44.
- 박현옥 (2008). 마음이해능력에서의 개인차 관련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자폐성장애연구**, 8(1), 155-173.
- 배기조, 최보가 (2002). 유아의 마음이론과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2(2), 195-216.
- 배소영, 임선숙, 이지희, 장혜성 (2004). **구문의미이해력 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송영주 (2007). 의사소통과 사회적 유능성에서 나타나는 유아기 마음이론의 일상적 의미. **계명문화대학. 한국연구재단(NRF) 연구성과물**.
- 이시자 (2008). 마음이론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4), 87-120.
- 이수미, 김혜리 (2000). 3, 4세 아동의 속입수에 대한 이해: 상위표상과 마음이론. **인간발달연구**, 7(2), 31-49.
- 이수미, 김혜리, 김아름, (2007). 이차순위 마음상태 이해의 발달적 변화. **한국심리학회: 발달**, 20(4), 1-16.
- 이영자, 이종숙, 신은숙 (2002). 놀람 정서와 관련한 마음이론의 발달. **유아교육연구**, 22(1), 89-104.
- 이영자, 이종수, 신은수 (2004). 유아의 마음이론 수준에 따른 가장놀이의 언어기능 수준, 어휘력, 정신상태용어 사용능력 발달. **유아교육연구**, 24(4), 141-160.
- 이채식 (2005). 정신지체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취업알선 서비스 경험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이현진 (2005). 단어의미 추론에서 상호배타성제약과 의도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1), 79-95.
- 우정환, 김상선 (2010) 읽기장애학생의 언어능력과 읽기능력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1(3), 163-183.
- 지은주, 이정순 (2007). 유아의 어머니·형제·언어능력과 마음이론의 관련성. **열린유아교육연구**, 12(2), 185-205.
- 진연선, 배소영(2014). 학령기 사회적 의사소통장애와 고기능자폐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 차이.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119(1), 45-59.
- 정진나 (2013). 일차순위와 이차순위 마음상태에 대한 아동의 이해: 발달적 격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3), 97-115.
- 최현옥, 김혜리 (2012).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마음읽기 능력의 발달적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3), 89-105.

- Astington, J. W. (2007). *아동의 마음 발견하기*(송순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전은 1993년에 출판).
- Baron-Cohen, S. (2005). *자폐증과 마음이론에 관한 에세이*(김혜리, 이현진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전은 1995에 출판).
- Happé, F. (1994). An advanced test of theory of mind; Understanding of story characters' thoughts and feelings by able autistic, mentally, handicapped and normal children and adults. *Journal of Autism Developmental Disorders*, 24(2), 129-54.
- Miller, S. A. (2012). *Theory of mind*. New york.: Psychology Press.
- Milligan, K., Astington, J. W., & Dack, L. A. (2007). Language and theory of mind: Meta-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language ability and false-belief understanding. *Child Development*, 78(2), 622-646.
- Perner, J., & Wimmer, H. (1985). John thinks that Mary thinks that... attribution of second-order beliefs by 5- to 10-year-old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39(3), 437-471.
- Perner, J. (1991). *Understanding the Representational Mind* Cambridge, MA: MIT Press.
- Permack, D., & Woodruff, G. (1978). Does the chimpanzee have a theory of mind?. *Behavioral and Brain Science*, 1, 515-526.
- Sullivan, K., Zaitchik, D., & Tager-Flusberg, H. (1994). Preschoolers can attribute second-order beliefs. *Developmental Psychology*, 30(3), 395-402.
- Wellman, H. M., Cross, D., & Watson, J. (2001). Meta-analysis of Theory-of-Mind Development: The Truth about False Belief. *Child Development*, 72(3), 655-684.

A Study of Mind reading and Language development of Adult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Ji-Yun Jung

Departmen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Daegu, University

Wha-Soo Kim

Departmen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Daegu, University

Kun-Youg Rhee

Departmen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relationship of mind reading and language develop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about 20 adult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20 general people in the chronological age matched group, and 20 general people in the language age matched group.

All theory of mind task performance was compared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group (MA), chronological-age (CA) matched group and language-age (LA) matched group. And, language development and theory of mind within MA groups' correlations were examin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 one way ANOVA was carried out comparing the three groups (MA, CA and LA) with respect to their scores on first-order theory of mind task. The main effect for group was significant. Second,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MA vs. CA groups on the second-order theory of mind task. Third,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within the group in the language test and correlated with theory of mind task performance.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terms of the specificity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group. Therefore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give suggestion for intervention and understanding of adult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Key Words :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ory of mind, Mind reading

논문 접수: 2014. 08. 05 심사 시작: 2014. 08. 13 게재 확정: 2014. 09. 22

<부록 1> 마음이론 과제 질문 및 채점기준

과제		질문	채점기준
일차 순위 마음 이론 과제	위치 이동 과제 책 과제	1. 지현이는 책을 어디에 두었나요? (확인 질문) 2. 지현이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미경이는 책을 어디로 옮겼나요? (확인 질문) 3. 화장실에서 돌아온 지현이는 책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검사질문) 4.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검사질문)	1. 책상 위 (1점) 2. 가방 안 (1점) 3. 책상 위 (1점) 4. 지현이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미경이가 가방에 책을 넣어서 (1점)
일차 순위 마음 이론 과제	내용 교체 과제 상자 과제	1. 지현이가 상자를 처음 보았을 때 이상자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나요? (확인 질문) 2. 지현이가 상자를 열어 보니 무엇이 있었나요? (확인 질문) 3. 방에 들어 온 미경이는 이상자를 보고 무엇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검사질문) 4.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검사질문)	1. 두유 (1점) 2. 사과 (1점) 3. 두유 (1점) 4. 두유 상자라는 표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1점)
이차 순위 마음 이론 과제	생일 선물 과제	1. 미경이는 지현에게 생일선물로 무엇을 샀다고 말했나요? (확인질문) 2. 지현이는 생일 선물로 무엇을 받을 것이라 생각 할까요? (확인질문) 3. 미경이는 지현이가 생일 선물로 머리띠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까요? (검사질문) 4. 현정이가 미경에게, 지현이는 너가 어떤 선물을 샀다고 생각하고 있어? 라고 물으며 무엇이라고 대답 할까요? (검사질문) 5.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검사질문)	1. 책 (1점) 2. 머리띠 (1점) 3. 아니오 (1점) 4. 책 (1점) 5. 지현이가 본 것을 미경이는 모르니까 (1점)
이차 순위 마음 이론 과제	사탕 파는 아주 머니 과제	1. 사탕 파는 아주머니는 지현이에게 어디로 간다고 말했나요? (확인질문) 2. 미경이는 돈을 가지로 어디로 갔나요? (확인질문) 3. 지현이는 사탕 파는 아주머니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미경이가 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검사질문) 4. 지현이는 미경이가 사탕을 사기 위해 어디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검사질문) 5.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검사질문)	1. 학교 앞으로 (1점) 2. 집으로 (1점) 3. 아니오 (1점) 4. 공원 (1점) 5. 지현이는 미경이가 사탕파는 아주머니를 본 것을 모르니까 (1점)
고차 순위 마음 이론 과제	선지의 거짓말 과제	1. 미경이는 모자를 쓴 지현이에게 무슨 말을 했나요? (확인 질문) 2.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검사질문) 3. 이 말을 들은 지현이는 어떤 생각할까요? (검사질문) 4. 지현이의 생각은 맞는 것인가요? (검사질문)	1. 예쁘네 (1점) 2. 친구에게 예쁘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상처 받을까봐 (1점) 3. 모자가 이쁘다고 생각함 (1점) 4. 틀린 것 (1점)
고차 순위 마음 이론 과제	풍자 과제	1. 엄마는 누워있는 딸에게 무슨 말을 했나요? (확인 질문) 2. 엄마는 누워 있는 딸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검사질문) 3. 이 말을 들은 딸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검사질문) 4. 딸의 생각은 맞는 것일까요? (검사질문)	1. 우리 딸 참 예의 바르게도 누워있네, 예의 바르네 (1점) 2. 딸을 꾸짖기 위해 (1점) 3. 엄마가 왔는데도 누워있는 모습을 야단치기 위해 (1점) 4.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함 (1점) 5. 맞음(1점)